



**카카오, 학생 AI 경진대회 'AI 톱 100 캠퍼스' 성료**  
 카카오는 6일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한 학생 대상 인공지능(AI) 경진대회 'AI 톱 100 캠퍼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렸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AI 활용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했다. /카카오



**SOOP, 식목일 맞아 스트리머 100명과 나무심기**  
 SOOP(숲)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스트리머들과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내 로맨틱 가든에서 열렸다. 장지수, 양평, 이지상 등 약 100명의 스트리머가 참여해 백일홍 나무를 식재하며 도심 녹지 확대와 생태 환경 보존의 의미를 공유했다. /SOOP



**iM금융그룹, 어르신·장애인 위한 정서안정 봉사활동**  
 iM금융그룹은 iM가족봉사단이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iM가족봉사단 식목일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 행사는 식목일의 의미를 살려 반려식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활력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iM금융그룹

**현대제철**

**한뼨 에세이 공모전**

'모먼트'서 30일까지 진행

현대제철은 6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미디어 플랫폼 '모먼트'에서 '나를 지탱해준 순간'을 주제로 한 '한뼨 에세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철이 구조물을 단단히 지탱하듯, 각자의 삶에도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준 존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현대제철은 보다 많은 이들이 일상 속 소중한 가치를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참여 문턱도 낮췄다. 참가자는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 물건, 장소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1회씩, 500자 이내의 짧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된다. /유혜은 기자

**인사**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장 김종민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경제총괄과장 정동혁

**부음**

▲이영원 씨 별세, 이기태(주한화 글로벌부문 상무)씨 부친상 = 4일 오후 11시 47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장지 전북 김제시 선영. (02)2227-7500

**LG전자, '앰배서더 4기' 출범... 역대 최고 경쟁률 65대 1**

1~3기 3800건·5500만회 성과 영상·글·사진·카툰 창작자 선발 제품 체험 지원·우수자 포상도



LG전자 앰배서더 4기 발대식 사진. /LG전자

LG전자는 자사 제품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알릴 앰배서더 4기를 발탁해 최근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4기 선발에는 3200여 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수준인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앰배서더는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4년부터 1~3기 활동을 통해 콘텐츠 누적 3800여건을 만들고 조회수 5500만 회를 달성했다. 1~4기의 SNS 팔로워 수는 총 1200만 명이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해왔던 콘텐츠 제작 지원비와 함께 앰배서더들이 원하는 LG전자 최신 제품을 제공하고 직접 체험한 후기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또 공식 활동이 종료되면 앰배서더

더 어워드를 통해 우수 활동자들을 선정, 총 2000만원 상당의 부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앰배서더 4기에는 영상 뿐 아니라 글, 사진, 카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폭넓게 선발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총 90만 명을 보유한 '소녀스키 부끄', 인공지능(AI) 강아지 채널 '멍터뷰', AI 고슴도치 직장인 '고또치' 등 동물 콘텐츠 창작자부터 AI 건강 채널 '안녕, 나의 건강', 인스타툰 작가 '뽕꾸', 상위 0.3% 수학영재 '쥬니러버', 뮤지컬 배우 이우리 등이 합류했다.

오성택 LG전자 한국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상무)은 "크리에이터들이 개성을 살려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1~4기 앰배서더 간의 시너지로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18기 모집**

포스코청암재단 환경 분야 신설로 지원 확대

포스코청암재단은 신진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인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18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환경 분야를 새로 신설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신진 교원을 선발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543명의 사이언스펠로우를 배출했다.

18기 모집은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4개 분야와 금속·신소재, 에너지소재, 환경 등 응용과학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환경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대기·폐기물·수질·토양 등 환경 매체

전반과 지구환경 변화 관련 연구를 포괄한다.

지원 대상은 임용 36개월 이내 전임 교원이다.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2년간 총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추천서 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10월 증서수여식 이후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는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폭넓은 연구 분야를 지원해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 신설한 환경 분야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오염 저감 등 복합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현대차, 'TEAM HMC' 10년 연속 후원**

2026 현대 N 페스티벌 출전 지원

현대차가 아마추어 동호회 레이싱팀 'TEAM HMC(현대 모터 클럽)' 레이싱팀 후원을 10년 연속으로 이어가며 국내 모터스포츠 육성 및 저변 확대에 힘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현대차 윤효준 국내사업본부장, TEAM HMC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TEAM HMC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TEAM HMC는 현대차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회원 중심의 순수 아마추어 레이싱팀이다. 2017년 창단 이후 KSF 아반떼컵, 현대N 페스티벌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왔다.



방송인 양상국(왼쪽부터), 현대차 국내마케팅실장 이철민 상무, 현대차 윤효준 국내사업본부장, TEAM HMC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유튜브버 흥시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TEAM HMC는 10년 연속 드라이버로 참가하는 방송인 양상국과 자동차 유튜버 흥시카(흥시car)를 포함한 총 5명의 드라이버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반떼 N으로 이번 '2026년 현대 N페스티벌'에 출전한다.

/양성운 기자

**KGM, 강남 심야 로보택시 확대**

서초 일부서 강남 전역으로 운행 코란도 EV 이어 토레스 EVX 추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KG모빌리티(KGM)가 자율주행 전문기업 SWM과 손잡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심야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KGM은 기존 운행 중인 심야로보택시 서비스 차량을 코란도 EV 모델에 이어 새롭게 토레스 EVX를 자율주행 택시로 추가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KGM과 SWM은 올 연말까지 로보택시 운행 물량을 20대 이상으로 늘려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범위와 시간도 이용자 편의에 맞춰 크게 늘어난다. 운행 구간은 기존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강남 전역(20.4㎢)으로 확대된다. 심야귀가객의 수요를 반영해 운행 시작 시간 역시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했다.

기술적 고도화도 이뤄졌다. KGM은 이번 토레스 EVX 투입 과정에서



KGM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확대 토레스 EVX 추가 운영.

양사 간 제어 신호를 직접 연동하는 등 핵심 제어 네트워크 설계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한층 세밀하고 안정적인 주행 제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KGM과 SWM은 도심 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기술 협력을 맺고, 강남 일대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일정 구역 내에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알아서 경로를 설정해 이동하는 '구역형 자율주행 택시'는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IG D&A, 임베디드SW 실무인재 키운다**

수료생 채용 연계 강화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방위산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LIG D&A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LIG D&A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은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임베디드SW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툴을 활용해 실제 개발 환경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LIG D&A 재

직자와 인증 강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방위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역량과 개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3기가 운영 중이며 오는 6월 수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진행된 2기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 중 9명이 LIG D&A에 최종 합격해 방산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

이번 4기는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은 다음달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 가산 DX캠퍼스 1센터에서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 wkh@